

‘V+有’에서 ‘有’의 상표지 기능 연구*

손 경 옥**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V有’의 통사적 특징 |
| II. 동사 ‘V’의 성질 및 특징 | V. 맺음말 |
| III. ‘V’와 ‘有’의 관계 | |

I. 머리말

중국어의 존재문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有’나 ‘在’ 혹은 ‘是’를 쓰거나 또는 동사 뒤에 동태 조사 ‘着’ 등을 써서 나타낸다.

- (1) a. 桌子上有一本英語詞典。 탁자 위에 영어 사전 한 권이 있다.
b. 客人在客廳里。 손님은 응접실에 계신다.
c. 樓下是教室。 아래층은 교실이다.
d. 牆上掛着他父親的照片。 벽에 그의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 외에 서면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사 뒤에 ‘有’를 써서 존재문을 만들기도 한다.

- (2) a. 牆上寫有‘肅靜’兩個大字。 담장에 ‘정숙’ 두 글자가 크게 쓰여 있다.

* 본 논문은 2009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에 의한 것임.
** 대구한의대학교 중어중국학부 교수

b. 牆上寫着‘肅靜’兩個大字。

- (3) a. 銅鏡上刻有花紋。 동경 위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b. 銅鏡上刻着花紋。

- (4) a. 地上放有幾只空木箱。 바닥에 빈 나무상자 몇 개가 놓여 있다.
 b. 地上放着幾只空木箱。

위의 예문들 속의 ‘有’는 모두 ‘着’로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有’는 소유나 존재 의미로서의 ‘있다’라는 의미는 탈색되고 ‘~어(고)있다’라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지속상 표지 조사로 문법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동사 즉 ‘가다’, ‘오다’, ‘있다’ 등의 동사는 어느 언어에서나 어휘의 의미가 없어지고 문법적 표지가 되는 문법화가 잘 일어난다. 우리말의 ‘있다’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a. 집에 나무가 있다.
 b. 아이에게 과자가 있다.
 c.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다.
 d. 아이가 누워 있다.

a, b는 본용언, c, d는 보조용언이며 둘의 차이점은 본용언은 어휘소로서 자립형식이고, 보조용언은 문법소로서 통사론적인 짜임새를 취하는 의존형식이라는 것이다. 같은 보조용언이라 하더라도 의미적, 통사적 특성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고 있다’는 진행상, ‘-어 있다’는 완료상이라는 상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¹⁾

1) 이수련(2003)에서 인용. 또 정언학(2002)은 “심리동사가 쓰인 ‘-고 있다’(믿고 있다)는 일종의 상태 상황으로 믿는 과정의 ‘진행’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상태 상황은 결과 단계의 우경계(결과 단계의 종결점)를 상징할 수 없어 ‘-고 있다’와 결합하여 상태 지속의 미 완료적 상

현대 중국어의 구어보다는 서면어에 많이 보이는 ‘V+有’구조에서 ‘有’는 위의 한국어 예문처럼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라는 어휘 의미가 약화되고 ‘-어 있다’, 혹은 ‘-고 있다’등의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상표지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V有’의 성질이나 내부 결합 구조도 살펴볼 것이다.

의미의 중심이 ‘V’에 있는지, ‘有’에 있는지, ‘V’와 ‘有’는 수식관계인지, 동보관계인지, 연동관계인지 혹은 이미 ‘有’가 상표지 조사로 문법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펴고 있다. 본고에서는 ‘V有’ 구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有’가 상표지로 문법화 되어 가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²⁾ 예문은 주로 중국어 교재나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CCL)의 말뭉치 자료에서 수집하였다.

II. 동사 ‘V’의 성질 및 특징

史有爲(1984:25-26)에 따르면 ‘V+有’의 이런 구조는 선진문헌에 이미 등장했으며 中古시대 중국어에도 나타나지만 근대한어에서는 도리어 이런 예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 (6) a. 桓桓武王保有厥土，于以四方，克定厥家。（《詩經·周頌·桓》）
 위풍당당한 무왕 용감한 군사 거느리고 사방을 돌보니 집집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네.
- b. 孫權據有江東，已歷三世，國險而民附，賢能爲之用.....(《蜀·諸葛亮·草廬對》)
 손권이 강동일대를 점거한지 이미 3대째입니다. 지세가 험준하고 백성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保有，具有，領有，享有，擁有，占有’ 등 現代漢語詞典(2005)에 단어로 수록되어 있는 ‘V有’는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런 단어들은 ‘了’，‘着’，‘過’ 등의 동태조사와 자유로이 결합한다.

들이 잘 따르며 재능 있는 자가 그에게 발탁되었습니다.....

‘V有’에 쓰이는 동사는 주로 일음절 동사이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지만³⁾, ‘著, 辦, 穿, 寫’등 동작동사도 있다. 일반 동작동사는 다음과 같이 상태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동작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

- (7) a. 書第154頁~155頁中寫有這樣一段對話。
책 154~155쪽에 이런 대화가 쓰여 있다.
b. 厂的代表接過偌大一个紅包, 上面寫有引人注目的現金數額。
공장의 대표가 이렇게 큰 봉투를 받았는데 위에는 눈에 확 띄는 현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 (8) a. 臨終前曾寫有遺囑, 決心捐獻全部財產。
임종 전에 그는 유언장을 썼고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b. 他還寫有大量的有關文學、哲學、政治等方面的書。
그는 또 문학, 철학, 정치 등에 관한 많은 책도 썼다.

예문 (7)에서 ‘寫’는 상태동사로 쓰였고 (8)에서는 동작동사로 쓰였다. 그렇지만 (8)의 동작 동사들도 ‘有’와 결합한 후 동태성이 많이 약화되어져서 동작 완료 후의 상태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상태동사로 쓰인 예문 (7)에서는 ‘有’를 ‘着’로 바꾸어도 의미상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작동사로 쓰인 예문 (8)에서는 ‘有’를 ‘着’로 대체할 수 없고 ‘瞭’로 대체할 수 있는 하지만 ‘寫瞭’와 ‘寫有’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李臨定(1992:95)은 아래와 같이 동사 가운데 동작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정지된, 지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상태동사라고 하였다.

3) 여기서 상태동사라 함은 李臨定(1992)의 분류에 따른 것이며 이런 상태동사들은 동작동사로 쓰이기도 하므로 학자에 따라 이를 동작성 타동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 (9) a. 燈籠在那兒掛着(呢)。 a'. 他正掛燈籠呢。
 b. 菜在桌子上擺着(呢)。 b'. 他正擺菜呢。
 c. 畫兒在牆上貼着(呢)。 c'. 他正貼畫兒呢。
 d. 花兒在花瓶里插着(呢)。 d'. 他正插花兒呢。

여기에서 掛(着), 擺(着), 貼(着), 插(着)등은 모두 상태동사로서 정지되고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상태동사는 오른쪽의 a', b', c', d' 등과 같은 상대적인 동작동사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오른쪽 문장의 掛, 擺, 貼, 插등은 동작동사로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상대적인 동작동사를 가지는 상태동사를 다음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밑줄 표시가 된 것은 CCL 말뭉치 검색 결과 ‘V有’ 구조에 쓰인 용례가 있는 동사들이다.

- (10) ① 사람이나 동물이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躺, 站, 趴, 蹲, 擠, 跪, 坐, 鉗, 圍, 落, 混, 騎
 ② 신체의 어떤 부위가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抬, 睜, 舉, 挺, 彎, 伸, 蜷
 ③ 사물이 놓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放, 晾, 擺, 扔, 攤, 鋪, 吊, 撒, 盛, 架, 停, 墊, 馱, 繞, 堆, 蓋, 埋, 存, 記, 挂, 擺, 貼, 插, 包, 夾, 壓, 挑, 纏, 罩, 塞, 擱, 腌, 排列, 陳列
 ④ 사물 등이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의 존재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 戴, 穿, 叼, 握, 夾, 扛, 踩, 捏, 抱, 背, 披, 捧, 拄, 頂, 別, 摟, 拿, 佩, 帶
 ⑤ 사물의 개합(開合)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開, 關, 合, 鎖, 張, 閉, 敞
 ⑥ 사물의 유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 NP2는 V 의 동작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衣服上綉着一朵花。 刀把上刻着一个小鹿。
 紙上邊畫着一只大公鷄。 黑板上寫着几行字。
 衣服上織着小熊貓。 書里邊印着不少色彩花儿。
 紙上邊抄着整齊的楷書。
 ⑦ 栽, 種, 生, 長, 結 류

- ⑧ 상대적인 동작동사가 없는 상태동사: 哽, 病, 住, 歇, 保, 醉, 醒, 活, 龔

史有爲(1984)는 자주 보이는 ‘V+有’ 조합은 일백여개가 된다고 하였으며, 薛宏武(2008)은 ‘V+有’에 들어가는 ‘V’는 수량이 제한적이며 ‘V’에 쓰일 수 있는 동사는 부착류, 포용류등의 두 종류라고 하였다.

- (11) ① 부착류(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착됨을 표시): 穿, 戴, 安佩, 標, 插, 彫, 題, 寫, 漆繡, 塗, 鋪, 搽, 坐, 貼.....
 ② 包容類(한 물체가 다른 한 물체의 내부에 존재): 配, 摻, 裝, 備, 懷, 雜, 載, 混, 灌, 挖, 盛, 包住, 存, 建, 含, 留.....

孫宏林(1996)은 ‘V+有’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동작성 타동사류, 타동사류, 자동사류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 (12) V1(동작성 타동사): 安, 辦, 保存, 保留, 備, 標, 布, 部署, 藏(收藏), 插, 摻, 存(儲存), 搭, 帶(攜帶), 彫, 訂, 堆, 縫, 附, 蓋, 雇, 掛, 畫, 划, 環, 繪, 混(攪雜), 加, 建, 建立, 鐫, 鐫刻, 開辦, 開設, 刻, 留(保留), 錄, 配, 配置, 佩, 噴, 披, 闢, 聘, 鋪, 設, 漆, 嵌, 設立, 設置, 收, 豎, 塑, 題, 貼, 塗, 挖, 握, 鑲, 鑲嵌, 寫, 繡, 懸, 遺存, 印, 栽, 珍藏, 種, 貯, 鑄, 裝(放入), 裝(安裝) 裝備, 裝載
 V2(동작성이 없는 타동사): 包含, 包括, 帶(具有), 含
 V3(자동사): 藏(隱藏), 存(存在), 落, 散落, 停, 隱藏, 蘊藏, 坐, 長

‘V+有’에 쓰일 수 있는 동사는 위의 예문들에 등장하는 일백여개 안팎의 제한적 단어들이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孫宏林(1996)은 ‘睡, 躺, 臥, 漂, 跪, 趴, 蹲, 走, 倒, 飛’등의 자동사나 ‘挑, 提, 背, 馱, 穿, 戴’등의 타동사는 ‘V+有’에 쓰일 수 없다고 하였으나 CCL의 말뭉치 검색 결과 이들 중 일부는 ‘V+有’에 쓰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 (13) a. 但水体表面漂有大量蚊蠅及小飛虫尸体。
그러나 물의 표면에는 모기, 파리 및 날 파리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다.
- b. 雖然不遠的牆邊，也蹲有一團黑影。
비록 멀지 않은 담장 가엿지만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다.
- c. 她躺在病床上，為丈夫和孩子做祈禱。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남편과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한다.
- d. 本站睡有 一千五百位難友，打鼾者至少有一千六百五十人。
본 역은 천오백명의 이재민들이 자고 있는데 코고는 사람이 적어도 천 육백 오십 명은 된다.
- e. 但是說死者就是瑪麗，這并不是因為死者穿有瑪麗的鞋子，或戴有瑪麗的帽子。
죽은 사람이 메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죽은 이가 메리의 신발을 신고 있고, 메리의 모자를 쓰고 있어서는 아니다.

CCL의 ‘V有’용례 검색 결과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V’들은 다음과 같은데,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골고루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 (14) 設有, 建有, 含有, 配有, 備有, 辟有, 印有, 刻有, 裝有, 附有, 存有, 藏有, 標有, 留有, 掛有, 長有, 貼有, 持有, 帶有, 寫有, 佩有, 放有.....

그 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V’가 이음절인 것도 있다.

- (15) 存放有, 陳列有, 排列有, 儲存有, 收藏有, 收集有, 蒐集有, 保留有, 保存有, 收留有, 安裝有, 裝備有, 裝載有, 隱裝有, 散落有, 蘊藏有, 掌握有, 包含有, 包括有, 蘊藏有, 佩戴有, 設置有, 配置有, 珍藏有, 建立有, 鐫刻有, 開辦有, 開設有, 設立有, 攜帶有, 鑲嵌有.....

‘V有’의 빈어는 대부분 구체 명사이지만 심리 활동과 관련이 있는 추상 명사들도 있다.⁴⁾ 일반적으로 ‘V有’ 구조가 쓰이는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16) NP1 + V有 + NP2

위의 구조에서 NP1이 장소를 나타내거나 혹은 행위 주체(혹은 생물 주어, 유정명사)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형이다.

첫 번째는 NP1이 장소를 나타내며 즉 NP2가 소재하는 위치(장소)이다. NP1은 주로 장소사와 방위사로 충당된다. 孫宏林(1996)이 자신이 검색한 전체 1,150만자의 말뭉치에서 NP1이 장소사와 방위사인 것이 73%를 차지한다고 밝힌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문형이다.

(17) a. 表殼背後寫有Daiwoo的字樣。

시계 딱지 뒤에는 Daiwoo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b. 在市場上出售的商品包裝上, 大都印有“請回收利用”的文字和圖案。

시장에서 파는 상품 포장에는 대부분 ‘재활용 하세요’라는 문자와 도안이 인쇄되어 있다.

두 번째는 NP1은 행위 주체자(施事)이다. NP2가 NP1의 행위 결과물일 경우 동태조사 ‘了’로 대체할 수 있으며 ‘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宋玉柱(1989)에 따르면 NP2가 ‘V’의 동작으로 인한 결과 빈어일 경우 결과 빈어는 모두 동작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그것의 출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사 뒤의 ‘了’는 이 과정의 실현을 나타낼 수 있고 정지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완료상 동태 존재문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존재문에서 동작의 주체는 동사 뒤에 위치하는 목적어로 표현되는데 대부분 한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이다. 여기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주어 자리에 오며 ‘V有’는 동작의 완결이나 실현과 그리고 그 실현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상태 지속을 다 표현해 낼 수 있다. 즉 ‘V+瞭’는 동작의 완료만 나타낼 뿐이지만 ‘V+有’는 완료로 인한 결과물의 현재까지의 상태 지속 여부

4) 주로 ‘懷有’, ‘抱有’ 뒤에 쓰이는 ‘自豪感, 恐懼, 敵意, 大志, 欲望, 感情, 敬意.....’ 등과 같은 감정명사들이다.

에 대한 정보까지 담고 있으므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의미면에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 (18) a. 這種舞蹈歷史悠久, 巴西辦有許多桑巴學校。
a'. 這種舞蹈歷史悠久, 巴西辦瞭許多桑巴學校。
이 춤의 역사는 오래 되었으며 브라질은 많은 삼바 학교를 세웠다.
b. 公司在160個國家建有分支機構。
b'. 公司在160個國家建瞭分支機構。
회사는 160개 나라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NP1 + V有 + NP2’ 문형은 서면어에서 사용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V’ 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Ⅲ. ‘V’와 ‘有’의 관계

‘V有’구조에서 의미의 중심이 ‘V’에 있는지, ‘有’에 있는지 그리고 ‘V’와 ‘有’의 통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 (19) a. 他穿有夾克衫。(他穿夾克衫, 他有夾克衫)
b. 他在銀行里存有一筆錢。(他在銀行里存一筆錢., 他在銀行里有一筆錢。)

史有爲(1984:39)는 아래의 ‘S1(N1 V有 N2), S2(L V有 N2) 중의 ‘V有’는 “거의 ‘有’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래도 문장의 소유의미, 존재의미는 변하지 않고 단지 부족해지는 것은 소유나 존재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속 의미일 따름이다”라면서 의미의 중심이 ‘有’에 있다고 하였다. 의미의 중심이 ‘有’에 있으므로 아래 예문에서 만약 ‘有’를 없애면 전혀 의미가 달

라져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0) S1 : 他存有一筆錢。(領有義, 靜態)
 → 他有一筆錢。(領有義, 靜態)
 → ? 他存一筆錢。(施動義, 動態)

- S2 : 石頭上刻有篆字。(存在義, 靜態)
 → 石頭上有篆字。(存在義, 靜態)
 → 石頭上刻篆字。(施動義, 動態, 不能成立)

문장의 성립 여부로 의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한 史有爲의 주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문장의 소유 및 존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며 존재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나 상태의 방식을 무시한 오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예문처럼 ‘有’로 대체할 수 없는 ‘V有’ 문장도 있다.⁵⁾

- (21) a. 魯迅著有《阿Q正傳》。
 魯迅은《阿Q正傳》을 지었다.
 b. 魯迅有《阿Q正傳》。
- (22) a. 孟明帶有幾分輕漫的口吻答道。⁶⁾
 孟明은 다소 거만한 어투로 대답했다.
 b. *孟明有幾分輕漫的口吻答道.....

예문 (21a)는 魯迅이 《阿Q正傳》을 지었고 작품이 작가의 사후에도 亡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21b)는 단순한 소유만을 나타내며 魯迅이《阿Q正傳》의 저자라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전혀 다른 의미

5) 아래 예문은 羅建邦, 範美群(2006/01)에서 인용.

6) ‘V₁着 V₂’에서 V₁이 V₂의 방식이 되는 문형과 아주 유사하다. ‘帶着孩子去音樂會’(아이를 데리고 음악회에 가다)

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 예문 (22)는 ‘帶有’를 ‘有’로 대체하면 비문이 된다.

《現代漢語八百詞》(1999:630-631)에서도 ‘V有’의 ‘有’를 ‘領有’, ‘具有’ 의미와 ‘存在’의 의미로 쓰인 것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3) 1. ‘領有’, ‘具有’의 의미로 쓰인 것

- a. 魯迅先生著有《阿Q正傳》、《狂人日記》等許多作品。
노신선생은 《阿Q正傳》, 《狂人日記》 등 많은 작품을 지었다.
- b. 這家伙懷有不可告人的目的。
이 녀석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목적을 품고 있다.

2. ‘存在’의 의미로 쓰인 것

- c. 銅鏡上刻有花紋。
동경 위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 d. 牆上寫有‘肅靜’兩箇大字。
담장에 ‘정숙’이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다.
- e. 這種水果含有多種維生素。
이 사과는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23a)의 ‘有’는 완결된 결과물의 존재 지속을 나타내고 (23b), (23c), (23d), (23e)는 모두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동사 뒤의 ‘有’의 기능은 모두 같은데 의미만으로 ‘領有’와 ‘存在’로 나누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蕭國政(1994)은 ‘有’의 어법 의미는 ‘擁有’행위가 ‘완료’된 후 참조시간 내에서의 지속 존재를 나타내는데 즉 ‘他有錢’의 ‘有’는 ‘他對錢的擁有’가 완료된 후 ‘有錢’의 상태가 화자의 참조시간 내에 지속 존재함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張斌(1993)은 ‘동사’가 ‘有’와 결합하면 중심은 동사에 있으며 ‘有’는 사실의 존재를 보충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주 생산성이 강하고 ‘包括有’처럼 이음질 동사들도 ‘有’와 결합하므로 단어로 보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V’와 ‘有’의 통사적 관계에 대해서 史有爲(1984)는 ‘단어와 구의 중간

단계의 언어 성분이며, 造語의 각도에서 보면 ‘V有’는 ‘有’를 중심으로 하는 수식구조이고, 구와 비교한다면 ‘V有’는 특수한 ‘연동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반면 《現代漢語八百詞》(1999:630-631)는 ‘V有’는 ‘V’와 ‘有’ 둘 사이의 결합이 긴밀해서 단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範方蓮(1963:392)은 현대중국어의 ‘V有’구조가 방언에서 쓰이는 ‘V着有’에서 ‘着’가 탈락된 형태라는 색다른 주장을 하였다.

(24) 어떤 방언에서는 ‘V着’ 후에 ‘有’자를 붙이기도 한다(예문 a와 b), 예문 c와 d는 ‘着’자가 없이 동사와 ‘有’자가 직접 결합한 것이다.

a. 床上睡着有人。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다.

b. 炕上地下坐着有八九個人。(馬烽)

온돌과 땅바닥에 여덟 아홉 명이 앉아 있다.

c. 在窯洞里, 地上放有紡車, 床上掛着鐵鍋。

토굴집 안에는 바닥에는 물레가 놓여있고, 침대 위에는 가마솥이 걸려있다.

d. 衛星上安裝有一臺工作頻率爲十九點九九四兆周的無線電發射機。

위성에는 주파수 19.994 메가헤르츠의 라디오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다.

孫宏林(1996)은 ‘有’는 동사 ‘V’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V有’는 동보관계라고 하였다. 羅建邦, 範美群(2006)는 ‘V有’의 관계는 동태관계라고 하였다. 즉 ‘V’는 동사핵심이고 ‘有’는 결과태를 나타내는 부가성분으로서 동태조사에 상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그래서 아래 예문에서처럼 ‘有’를 ‘瞭’나 ‘着’으로 바꿔도 기본의미에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25) a. 魯迅著有《阿Q正傳》 → 魯迅著了《阿Q正傳》

b. 我身上帶有錢 → 我身上帶了/着錢

두 개의 동사가 같이 쓰이다 보면 의미적으로 덜 중요한 동사가 개사나

조사 등으로 문법화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어의 상표지 조사는 모두 동사에서 문법화된 것이다. 그 중 어떤 것은 완전히 문법화 되었고, 어떤 것은 아직 완전하게 문법화 되지 않았다. 李臨定(1992:31)은 ‘了’, ‘着’ 등의 상표지 조사와 비교하여 아직 완전히 허화 되지 않은 것들은 준상표지 조사(혹은 반상표지조사)라고 하였다. 즉 ‘起來, 開/開來, 上, 下來, 下去, 往, 掉, 到, 上來, 過來, 過去, 穿, 破’ 등의 ‘준상표지조사’들은 ‘보어’로 쓰이는 방향동사나 기타 동사들에서 허화된 것들이라고 하였다.

위의 대다수는 일반 어법 책에서 방향보어의 확장 혹은 특수 용법으로 소개되는 것들로서 ‘起來’, ‘開/開來’, ‘上’ 등은 시작 계속상을, ‘下來’는 과거 연속상을, ‘下去’는 미래 계속상을 각각 나타내는 준상표지 조사이며 ‘上, 起來, 出來/出, 下/下來, 住, 掉, 到, 上來, 過來, 過去, 穿, 破’ 등은 완료상을 나타내는 준상표지조사라고 하였다.

- (26) a. 他站起來瞭。 그는 일어섰다.
 b. 他從樓上走下來瞭。 그가 윗층에서 내려왔다..
 c. 石頭從山上滾下去。 돌이 산 위에서 굴러 떨어지다.
 d. 捷報從四面八方飛過來。 승전보가 사방에서 날아오다.
- (27) a. 他站在那兒哭起來。 그는 거기 서서 울기 시작했다.
 b. 就這樣瞞下來。 이렇게 꺾 속여 왔다.
 c. 把那個試驗繼續搞下去。 그 시험을 계속해 나가다.
 d. 他已經醒過來。 그는 벌써 깨어났다.

예문 (26)은 방향보어, 예문 (27)은 준 상표지조사로 쓰인 것인데 (27)은 (26)에 비해 글자 자체의 어휘의미를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V+V’구조에서 준상표지조사로 쓰이는 두 번째 동사는 ‘보어’로 쓰이는 동사보다 어휘 의미를 많이 상실하였다. ‘V+有’구조에 대한 연동구조, 동사 + 결과보어 구조, 상표지 조사 등등 여러 학자들의 제 설은 사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즉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

로 변해가는 문법화의 과정 중의 한 단계만 바라본 관점일 수 있다.

(28) 연동구조 → 동보구조 → (준)상표지 동태조사

‘桌上放着一個花瓶’이라는 문장에서 ‘放着’은 이미 ‘放’이라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고 ‘着’의 역할을 빌어 동작으로 생겨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게 되는 것처럼 ‘桌上放有一個花瓶’에서는 ‘放有’는 ‘放’이라는 동작이 완결된 후 그 상태의 지속을 ‘有’를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V有’는 진행이나 결과 상태 지속상을 나타내는 준상표지조사라고 주장하고 싶다. 여기에서 ‘有’는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의 어휘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동사로 인해 만들어진 완결 상태나 결과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 그리고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의미의 상표지화로의 문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IV. ‘V有’의 통사적 특징

CCL 검색결과 ‘V有’는 상표지 성분 ‘了, 着, 過’나 ‘正, 曾經’같은 시간 표시 부사와도 같이 쓰이지 않으며 ‘已經’은 아주 드물게 같이 쓰인다.⁷⁾ 그리고 긍정의 평서문에만 쓰이고 의문, 부정형에 쓰이는 예문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 (29) a. 書房里鋪有地毯。 서재에 카펫이 깔려 있다.
 b. ? 書房里不(沒)鋪有地毯。
 c. ? 書房里鋪有地毯?

7) 사전에 단어로 등재된 단어들은 ‘了’, ‘着’, ‘過’와 자유로이 결합할 수 있으며 ‘畱有’는 아직 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了’, ‘着’, ‘過’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단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존재문에서 ‘着’과 ‘了’는 서로 호환하여 쓸 수 있고 의미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있다.

- (30) a. 牆上掛着/了一幅畫。
 b. 椅子上坐着/瞭兩個人。
 c. 草棚上積着/了一層雪。
 d. 臉上長着/了幾顆黑痣。
 e. 黑板上畫着/瞭一幅漫畫。
 f. 頭髮上插着/瞭好些野花。

範方蓮(1963:389)은 여기에 쓰인 ‘着’는 ‘了’에 상당하며 호환할 수 있고 동사 뒤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了’와는 다르다고 하였으며, 于根元(1983)은 “상태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빨리 완료되며 만들어진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때는 ‘着’을 쓰고 어떤 때는 ‘了’를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戴耀晶(1997:91-93)은 위의 문장에서 ‘着’와 ‘了’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양자는 호환 후 모두 문제가 없는 문장이긴 하지만 모두 의미가 같은 문장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즉 호환 후의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더 이상 같은 통사 의미 특징을 가진 문장은 아니라고 하였다.

- (31) ‘瞭’를 가진 문장은 완전한 동태의 현실 사건을 나타내며, ‘瞭’는 그 사건에 대한 관찰이 외부(outside)에 착안했음을 나타내고 ‘瞭’는 어떤 정태의 시작 변화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고 상대적인 어떤 참조 시간으로 말하자면 문장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반영한다.

그리고 ‘着’를 가진 문장은 정태적 지속사건을 나타낸다. ‘着’은 그 사건에 대한 관찰이 내부(inside)에 있음을 나타내고 사건은 분해할 수 있다. ‘着’은 그 사건이 현재 연속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지속성을 표현한다.

- a. 牆上掛着一幅畫。 a'. 牆上掛了一幅畫。

- b. 牆上掛着的是一幅畫。 b'. * 牆上掛了的是一幅畫。
 c. 一幅畫在牆上掛着。 c'. * 一幅畫在牆上掛了。
 위의 예문으로 봤을 때 호환설은 성립할 수 없다.

李臨定(1986:84)은 ‘존재문에서 ‘着’과 ‘了’는 서로 호환해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정태문에만 적용이 되며 동태문의 ‘着’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了’로 바꾸어 쓸 수 없을 때도 있고 바꾸어 쓸 수 있을 때도 있다고 하였다. 聶文龍(1989:97)은 아래 예문 같은 정태문의 ‘着’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뒤에 붙어서 동작이 완료된 후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므로 ‘완료상’ 표지인 ‘瞭’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고 하였다.

- (32) a. 沙發上坐着一位客人。 a'. 沙發上坐瞭一位客人。
 b. 牆上貼着一張地圖。 b'. 牆上貼瞭一張地圖。

그러나 동태문의 ‘着’은 동작 동사 뒤에서 동작의 지속상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瞭’로 바꾸어 쓸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하였다.

- (33) a. 窗外飛舞着雪花。 a'. * 窗外飛舞瞭雪花
 b. 大街上走着幾個戰士。 b'. 大街上走瞭幾個戰士。

宋玉柱(1989)는 아래 예문 속의 빈어는 결과 빈어이기 때문에 ‘V+了’는 ‘V+着’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과빈어를 가지는 문장은 반드시 완료상 동태존재문이므로 ‘了’를 ‘着’으로 바꾸어 쓰지 못한다고 하였다.⁸⁾

8) 2장 예문 10)에서처럼 ‘衣服上綉着一朵花’, ‘刀把上刻着一个小鹿.’ 등의 문장이 가능하고 또 CCL에서도 ‘傍依山坡, 挖着幾十間窯洞’, ‘周圍搭着許多簡陋的窩棚’ 등의 예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동태존재문에서 ‘瞭’를 ‘着’로 바꾸지 못한다는 宋玉柱의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蓋’, ‘挖’, ‘搭’ 등의 단어가 ‘着’를 뒤에 가지고 상태동사로 쓰이는 것이 보편적이지는 않으므로 이들 문장의 성립 여부에 관한 중국어 화자들의 반응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 (34) a. 外面圍着外牆，裏面蓋了許多敞亮的現代化的高大廠房。
a'.? 外面圍着外牆，裏面蓋着許多敞亮的現代化的高大廠房。
- b. 高山的一側，挖了一排掩蔽室。
b'.? 高山的一側，挖着一排掩蔽室。
- c. 屋外搭了一個棚。
c'.? 屋外搭着一個棚。

그렇지만 위의 예문은 ‘V+有’로 대체할 수 있다. 예문 (36)은 CCL 말뭉치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 동사 뒤에 ‘有’를 써서 동작의 완결과 그리고 그 완결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상태 지속을 다 표현해낼 수 있다.

- (35) a. 外面圍着外牆，裏面蓋有許多敞亮的現代化的高大廠房。
바깥은 담장으로 둘러 쌓여있고, 안에는 현대식의 넓고 큰 공장이 많이 지어져 있다.
- b. 高山的一側，挖有一排掩蔽室。
높은 산 한쪽에는 저장실 한 줄이 파여져 있다.
- c. 屋外搭有一個棚。
집 밖에 천막이 하나 쳐져있다.
- (36) a. 條件當然比老家差遠了，人人蓋有樓房，又寬敞，又舒服！
상황은 물론 고향보다 훨씬 못하지만 모두들 이층집을 지어 넓고 쾌적하다.
- b. 會場區除了談判會場外，還搭有一些大小帳篷。
대회장구역은 회의장 외에도 작은 천막들이 쳐져 있다.
- c. 家家戶戶都挖有地下果窖，貯藏着鮮靈靈的蘋果。
집집마다 지하 과일 저장소를 파서 싱싱한 사과를 저장하고 있다.

石毓智(2004:106) 은 다음의 예문에서 ‘V有’의 ‘有’는 완료상 표지 ‘瞭’와 매우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즉 ‘有’나 ‘瞭’모두 동작행위가 과

거의 어떤 시각에 일어났으며 행위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有’를 ‘瞭’로 바꾸어 써도 문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며 ‘有’에는 완료상 표지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 (37) a. 牆上畫有壁畫。 → 牆上畫瞭壁畫。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b. 他帶有三千人馬。 → 他帶瞭三千人馬。
그는 삼천 군대(병마)를 거느리고 있다.
c. 他(*已經)在銀行里存有一筆錢。 → 他(已經)在銀行里存瞭一筆錢。
그는 은행에 꽤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다
d. 他父親在海外辦有三所學校。 → 他父親在海外辦瞭三所學校。
그의 아버지는 해외에 학교 세 개를 세웠다.

그러나 사실상 d를 빼고는 ‘有’를 완료상 표지 ‘瞭’보다는 지속상 표지 ‘着’으로 바꾸는 것이 더 문장의 기본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예문 (38)에서는 ‘有’를 ‘瞭’로 바꿀 수 없다. 감정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抱有’나 ‘懷有’의 ‘有’는 상태 지속 계속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 (38) a. 當教師拿到名單後，認為名單上的學生有發展前途，對他們抱有很大的期望。
교사는 명단을 손에 넣은 후 명단 속의 학생들이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 그들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다.
b. ? 當教師拿到名單後，認為名單上的學生有發展前途，對他們抱瞭很大的期望。
c. 當教師拿到名單後，認為名單上的學生有發展前途，對他們抱着很大的期望。

(39) a. 中國人民一直對俄羅斯人民懷有友好的感情。
중국 국민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줄곧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다.
b. ? 中國人民一直對俄羅斯人民懷瞭友好的感情。

c. 中國人民一直對俄羅斯人民懷着友好的感情。

존재동사는 상태동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이다. 따라서 비활동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많은 문법표지들이 존재동사에서 발전하였다. 존재동사는 한국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많은 문법화 현상들을 보여준다. 존재동사로부터 발달한 것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법표지는 미완료상이다. 미완료상에는 진행상(progressive), 계속상(continuative), 지속상(durative), 시발상(inceptive) 등이 포함된다. 존재동사는 대부분 미완료상 표지로 발전하지만 드물게는 완료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⁹⁾ 많은 언어에서 ‘있다’라는 존재 동사는 ‘있다’는 ‘존재’라는 원형에서 ‘장소, 소유, 시간’ 따위로 그 뜻이 확장됨으로써 문법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성하에 따르면 한국어 존재동사는 결과상, 완료상, 과거표지, 진행형 등의 다양한 문법표지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 (40) 한국어의 존재동사 ‘있다’는 비종결표지인 ‘-어’의 뒤에 결합하여 연계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인 ‘-어 잇’, ‘-엇-’등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문법소들은 처음에는 ‘-한 상태로 있다’와 같은 결과상을 나타내었는데, 17세기부터는 ‘-엇-’이 등장하면서 완료상과 과거표지로 발전하였다..... ‘있다’는 다른 비종결표지인 ‘-고’의 뒤에 결합하여 ‘-고 잇-’형의 진행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어는 이도식의 여러 곳에 초점을 자유로이 이동시켜서 여러 문법소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¹⁰⁾

신연호(2004)는 ‘-어 있다’는 종결된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 상황을 나타내고, ‘-고 있다’는 계속상 ‘진행’을 기본의미로 하는 대표적인 ‘상’ 형식, 진행 외에도 ‘지속’, ‘반복’, ‘습관’, ‘결과상태’ 등등의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어의 ‘있다’는 결과상, 완료상, 진행상, 과

9) 이성하(1998:311-314)

10) 앞의 책 312쪽에서 인용.

거표지등의 다양한 상표지를 나타내는 문법소로 문법화 하였다. 그럼 중국어에서 동사 뒤에 오는 ‘有’는 어떤 상표지로 문법화 되고 있는가?

중국어에서도 ‘V有’구조에서 ‘懷有’, ‘抱有’등이 뒤에 아래와 같은 감정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면 한국어처럼 ‘-고 있다’는 상태 지속 계속상을 나타내게 된다.

- (41) a. 不應對他的能力懷有疑問。(自豪感, 恐懼, 敵意, 大志, 欲望, 感情, 興趣, 憤怒和仇恨, 疑問, ~情緒.....)
그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 b. 或許他們對未來抱有幻想。(排斥心理, 偏見, 成見, 興趣, 期望, 志向, 擔憂, 疑慮, 信心, 不滿.....)
어쩌면 그들은 미래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외 대부분의 ‘V有’는 완결된 결과상태 지속 혹은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가장 흔히 쓰이는 ‘NP1 + V有 + NP2’ 문형에서 NP1이 사람이고 ‘V’가 동작동사일 경우 그리고 NP2가 동사의 동작으로 인한 결과물일 경우 ‘V有’를 ‘V着’으로는 바꿀 수 없고 ‘V瞭’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V有’와 ‘V瞭’는 의미상 완전히 같지는 않다. ‘V瞭’는 단순한 행위의 완료만 나타낼 뿐 현재 그 결과물의 존재가 지속되고 있느냐는 말해 주지 못하지만 ‘V有’는 행위의 완료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물의 존재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 (42) a. 魯迅先生著有《阿Q正傳》、《狂人日記》等許多作品。
b. 魯迅先生著瞭《阿Q正傳》、《狂人日記》等許多作品。
c. * 魯迅先生著着《阿Q正傳》、《狂人日記》等許多作品。
- a. 1984年, 天風曾寫有一首《告別》, 那是他遺言式的詩。
b. 1984年, 天風曾寫瞭一首《告別》, 那是他遺言式的詩。
c. * 1984年, 天風曾寫着一首《告別》, 那是他遺言式的詩。

V. 맺음말

‘V+有’는 주로 서면어에 쓰이는 존재문의 표현 방식이다. ‘V有’구조에서 의미의 중심은 ‘V’에 있고 ‘有’는 ‘V’ 동작이 완결된 후 완결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지속상 표지로 문법화하고 있는 준상표지조사로 보인다. 감정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懷有’, ‘抱有’에서의 ‘有’는 상태 지속 계속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상표지조사와 동사와의 결합은 자유롭고 제한이 거의 없지만, 준상표지 조사와 동사와의 결합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원래 이 ‘V+有’의 ‘V’에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제한적인 수였지만 갈수록 사용 가능한 동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 구조는 현재 계속 문법화의 발전 단계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V+有’의 ‘有’는 대부분 상태 지속상 표지 ‘着’과 호환해서 쓸 수 있고, 일부 동작동사 뒤의 ‘有’는 ‘了’와 호환해도 문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의미, 화용 면에서 ‘V有’는 ‘了’와 ‘着’가 합쳐진 고유의 표현 기능이 있는 것 같다.

<參考文獻>

- 戴耀晶,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範方蓮, <存在句>, 《中國語文》 1963年 第5期.
高增霞, <從非句化角度看漢語的小句整合>, 《中國語文》, 2005年 第1期.
李臨定, 《現代漢語句型》, 商務印書館, 1986.
_____, 《現代漢語動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92.
羅建邦, 範美群, <“V有”式“V”“有”之關係及相關問題>, 重慶師範大學學報, 2006年 1期.

- _____，〈從三個平面看“V有”和“V了”之差異〉，江西科技師範大學學報，2006年 3期。
- 聶文龍，〈存在和存在句的分類〉，《中國語文》，1989年 第2期。
- 史有爲，〈關於“動+有”〉，《語言學論叢》第13輯，商務印書館，1984。
- 石毓智，《語法的形式和理據》，江西教育出版社，2001。
- _____，《漢語研究的類型學視野》，江西教育出版社，南昌，2004。
- 宋玉株，〈完成體動態存在句〉，《漢語學習》，1989年 6期。
- 蕭國政，《漢語語法問題研究》，華中師範大學出版社，武漢，1994。
- 孫宏林，〈由“V+有”構成的存在句〉，《世界漢語教學》，1996年 2期。
- 薛宏武，〈對現代漢語“V有”結構的認識問題〉，華中科技大學學報，2008年 4期。
- 于根元，〈關於動詞後附“着”的使用〉，《語法教學與探索(-)》，北京大學出版社，1983。
- 張斌，〈關於“有”的思考〉，《語文建設通訊》第42期，1993年 12月。
- 邵敬敏，任芝鏌等，《漢語語法專題研究·增訂本》，北京大學出版社，2009。
- 《動詞用法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7年。
-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2002年 增補本。
- 《現代漢語八百詞》，商務印書館，1999。
- 김석득，〈정태지속상 ‘어 있’에 대하여〉，《겨레문화》，세종대왕 기념사업회，1987。
- 신언호，〈‘-고 있-’과 부분성〉，《국어학》44호，2004。
- 이성하，〈문법화의 이해〉，한국문화사，1998。
- 이수련，〈‘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의미, 화용적 연구〉，《국어학》42호，2003년 12월。
- 이호승，〈현대 국어의 상 체계와 보조용언의 상적의미〉，《국어학》38호，2001。
- 정언학，〈‘-고 있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진단학보》94호，2002。

<中文提要>

‘V+有’結構是書面語存在句表達方式。在‘V+有’結構里意義的中心在於‘V’，‘有’的功能像是準表體助詞。牠的功能類似於表持續體助詞，表示‘V’動作完結後完結狀態的持續。帶感情名詞為賓語的‘懷有’，‘抱有’裏的‘有’還能表示繼續體。

表體助詞與動詞的結合非常自由併不受限制，但準表體助詞和動詞之間的結合相對來說受限制。因此可以用於‘V+有’結構的動詞數量原本有限，現在漸漸多起來，筆者認為‘V+有’結構中的‘有’正處於向表體助詞語法化的發展階段。‘V+有’結構中的‘有’大部分可以與表持續體助詞‘着’互換，動作動詞後的有些‘有’與‘瞭’互換而意義不變，不過在語用方面‘V有’具有其固有的意義和功能。

주제어 : ‘V+有’구조, 존재문, 상태 지속, 준상표지조사, 문법화

